



시뒀 기자회견 하는 최만희 감독

광주FC 떠나는 최만희 감독 걱정토로

훈련장도 없는 구단... 단장은 "맨땅에서 공 차라"

고별경기서 전남에 1-0 승

승자들은 패자의 얼굴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광주 FC가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의 K리그 44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는 2012시즌 최종전이자 강등팀 광주의 1부 고별전이었다. 또 광주의 초대 사령탑인 최만희 감독이 고향팀에서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잡는 날이기도 했다.

후반기 부진으로 감독의 애를 태웠던 외국인 선수 북이와 주장으로 팀의 추락을 지켜봐야 했던 김은선이 시즌 마지막 골을 만들었다. 후반 13분 문전에 있던 북이가 머리로 찍어 준 공을 김은선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전남의 골문을 갈랐다.

골이 터지자 선수들은 일제히 최만희 감독이 있는 벤치로 향했다. 벤치를 지키고 있던 코칭스태프와 후보 선수들도 일제히 그라운드에 올라 큰절을 했다. 떠나는 스승 최만희 감독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담아 선수들은 꺾듯이 고개를 숙였다. 결승골을 도운 북이는 1분 뒤 공동설과

열악한 숙소·부실한 식사에용품사용도 어려움
 주요 선수들 다른팀에 빼앗겨도 구단선 선수방관
 단장이 감독과 상의없이 시즌 중 선수 이적 추진
 박병모 단장 침묵...흠피에 "단장사퇴" 요구 쇄도

교체했다. 북이는 자신의 한국 첫 무대였던 광주의 하늘을 잠시 올려본 뒤 교체해 들어가는 김동섭을 끌어안았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눈물까지 보이며 광주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광주는 이 골을 지키며 1-0으로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하지만 이미 강등이 확정된 광주 선수들은 패자의 얼굴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최만희 감독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2012년도에 시작된 스플릿 시스템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며 "프로축구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자극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제도라 생각하지만 참단한

지 2년 만에 갑자기 당하는 것이라 당황스럽고 아쉽기도 하고, 경기를 마치면서 팬들에게 미안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감독은 또 이 자리에서 "2부리그 강등을 피하지 못한 것은 부덕의 소치로 사퇴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불확실성이 불거졌던 박병모 단장에 대한 날선 얘기도 쏟아졌다.

최 감독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구단에 호소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단장과) 만나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며 광주의 산적한 문제에 대

해 털어놨다.

최 감독은 "처음 속으로 썼던 공무원 연수원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져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해 선수들이 옷을 꺼입고 지냈는데 단장이 이를 방치했다. 2인1실의 원룸으로 옮긴 후에는 여름 더위에 선수들이 힘들게 지냈다"며 "선수들 식사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광주시가 뒤늦게 도움을 줬다"고 선수들 처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용품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최 감독은 선수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단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허재원·박병주 두 수비수를 제우에 뺏겼다고 언급한 최 감독은 "슈바의 경우에도 '쓰지 못하는 선수'라 감독 의사도 묻지 않고 단장이 일방적으로 보냈다. 대전에서 활약한 김병석이 군대에 가기 전에 고향팀에서 뛰겠다고

제우에 영입을 하려했는데 이마저도 단장이 처리해 주지 않았다"며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박호 팀장이 선수들을 팔기 위해

몰아다니기까지 했다. 구단 측에서 감독과 상의도 없이 시즌 중반에 이적을 추진해 내부 분위기가 요동쳤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또한 "시민구단은 구단주인 시장이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다. 그만큼 임명을 받은 수장이 잘해야 한다. 일례로 김재하 대구 FC 사장은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잘 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다. 하지만 박 단장은 운동장 없이 훈련을 못한다고 하자 '없으면 맨땅에서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최 감독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광주 FC 홈페이지에는 후폭풍이 거세다. 팬들은 선수들을 격려하는 글과 함께 구단의 안일한 운영을 꼬집으며 단장의 동반 사퇴를 요청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병모 단장은 이에 공식적인 반응 없이 침묵하고 있다.

소통 부재 속에 2부 리그로 추락한 광주가 최 감독의 폭탄 발언과 함께 또 다른 갈림길에 섰다.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이 광주의 시급한 숙제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

5일 광주 진월동 밀러타임 빅스포점서 열려
 KIA 선수단 유니폼 입고 서빙·애장품 경매

롯데백화점서 사인회도

투병중인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가 열린다.

KIA 타이거즈와 선수단 상호회(회장 김상훈)가 5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 밀러타임 빅스포점에서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연다.

선수단은 유니폼을 입고 서빙을 하며 사인볼 판매, 포토 타임, 애장품 경매를 통한 모금활동에 나선다.

오후 3시부터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행사장에서는 서재응, 김진우, 윤석민, 이용규, 김선빈 등 5명이 참가하는 사인회가 진행된다.

오후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빅스포 2층 중식당에서는 팬 미팅 식사 행사가 열린다. '저녁식사 경매 이벤트'를 신청한 팬들과

선수들이 자리를 하는 자리로 식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김동재 코치 돕기에 사용된다.

이날 일일호프 수익금 전액은 김동재 코치 돕기에 쓰여진다. '2012 호랑이가족 한마당' 예산 중 '2012 온라인 호랑이가족 한마당'의 행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행사 참가자들의 명의로 김동재 코치 돕기 모금에 기부된다.

상조회장인 김상훈은 "김동재 코치님이 하루 빨리 정상으로 완쾌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3 회제를 맞아 선수들의 참여 의욕이 더 높아지고 있다. 선수단 모두 제 일처럼 열심히 나서줘 좋은 행사가 될 것이다. 많은 팬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진원 한국프로골프 켈리파잉스쿨 3차 본선 1위

이진원(사진)이 2013년도 한국프로골프 코리아 투어 켈리파잉(Q)스쿨 3차 본선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진원은 지난 30일 나주 해피니스 CC에서 끝난 Q스쿨 최종전에서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잡아내며 12언더파 276타로 1위에 올랐다. 이진원은 4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코리아 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이번 본선전에는 527명(국내선수 504명·해외선수 23명)의 참가자 중 예선을 통과한 선수 120명이 출전했으며, 47명이 내년 시즌 코리아투어에 진출했다.



박찬준(20)은 이진원과 동타를 이뤘지만 매칭스코어카드 방식에 따라 2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 출신 한창원(21·신한금융그룹)이 선두에 2타 뒤진 10언더파 278타로 3위를 기록하며 내년 시즌 활약을 예고했고, 당뇨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오빠이 셋' 박부원(47·링스)도 23위로 통과하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겼다" 2일 부산 기장군 베이사이드 골프장에서 열린 KB금융그룹 제11회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제2라운드에서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우승했다. 18홀을 끝낸 신지애(맨 오른쪽)가 달려와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여자프로골프대항전 일본 격파

10승3무5패 승점 23 대 13

한국 여자프로골프가 3년 만에 열린 한·일 대항전에서 일본을 꺾고 대회 2연패의 기쁨을 맛봤다.

한국은 2일 부산 베이사이드 골프장(파

72·6345야드)에서 열린 'KB금융그룹 제11회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둘째날 5승3무4패로 일본을 제압했다. 전날 5승1패로 승점 10을 따낸 한국은 최종 성적 10승3무5패, 승점 23-13으로 승리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에서 2연패

를 이룬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도 6승2무3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12명이 1대1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승부를 가린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초반에 나선 선수들이 줄줄이 일본에 무너졌으나 치열한 후반 접전 끝에 힘겹게 우승을 확정 지

었다.

한국에서는 전남 한국에 첫 승점을 안긴 박민비, 유소연과 더불어 최나연, 신지애가 2승점을 올렸다. 전날 한국팀 선수 중 유일하게 패한 허은경도 이날 4언더파 68타를 기록, 이븐파에 머문 모리타 리카코를 꺾으며 이날 첫 승리를 기록했다.

이 대회는 총상금 6150만원이 걸려 있으며 우승팀에 1인당 300만원씩 3900만원, 준우승팀에 1인당 150만원씩 1950만원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양희은 2012 Dinner Show
 2012 송년 디너쇼

2012년 12월 13일(목) 18시 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기념품 증정

티켓가격 ₩165,000원(부가세포함)

예약 및 문의

신양파크호텔
 062)228-4711~2 062)221-4101~3

특별출연
 송은이